2014년

국외연수보고서

(베트남 · 캄보디아)











議

전 라 북 도 의 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CONTENTS







연수개요 ---------- **4**

베트남 ---------- **6**

1. 베트남의 사회적 특성과 관광산업 6
2. 천혜의 관광자원인 자연환경 8
3.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관광산업 10
4. 기관방문 및 면담 : 광림성 관광위원장 10

캄보디아 ---------- **13**

1. 캄보디아의 사회적 특성과 관광산업 13
2. 세계 최고의 건축물 앙코르와트 14
3. 기관방문 및 면담 16
   : 캄보디아 관광부 및 압사라재단

시사점 ---------- **18**

전 라 북 도 의 회
문 화 관 광 건 설 위 원 회

연수개요

■ 연수목적

○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차별적인 관광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전략과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전라북도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자연관광적 매력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동남아 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벤치마킹

■ 연수기간 : 2014. 10. 1(수)~10. 6(월) / 4박 6일

■ 연수지역

○ 베트남 : 하룽베이(시내, 하룽베이, 관광위원회 등)

○ 캄보디아 : 앙코르와트(시내, 앙코르와트, 관광부 및 압사라재단면담)

■ 연수 참가자(총 15명)

구 분	연수 참가자	소속 · 직책
1	김 광 수	전라북도의회 의장
2	이 성 일	문화관광건설위원
3	장 명 식	
4	백 경 태	
5	박 재 완	
6	최 은 희	
7	강 용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8	배 동 규	〃
9	박 세 환	〃
10	최 효 열	〃
11	김 경 수	〃
12	이 정 로	운영전문위원실
13	윤 형 석	〃
14	구 자 협	의장 비서
15	소 승 화	총무담당관실



■ 연수일정

일자(요일)		도착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 요 내 용
10.01 (수)	9:45 12:35	인천공항	하 노 이		· OZ편 출발 · 하노이 국제공항 도착
	14:00	하 노 이	하룽베이	이 동	· 하룽베이 이동
10.02 (목)	09:00	하룽베이		견 학	· 유네스코 지정 하룽베이 3천여 섬 시찰
	14:00	하룽베이		기 관	· 꽝린성 관광위원회 방문
10.03 (금)	09:00	하룽베이	하 노 이	견 학	· 하노이 시내견학 · 호치민 생가 방문 · 베트남 국보 1호 한기둥 사원 방문
	17:50 19:30	하 노 이	씨 엠 립	이 동	· VN편 출발 · 씨엠립 국제공항 도착
10.04 (토)	09:00	씨 엠 립		견 학	· 앙코르와트, 앙코르 톰 시찰 · 바이욘사원 등 4개소 사원 견학
	14:00	씨 엠 립		기 관	· 캄보디아 관광부 및 APSARA Authority 면담
10.05 (일)	09:00	씨 엠 립		견 학	· 씨엠립 시내견학 · 캄보디아 수상가옥촌 견학 · 킬링필드 위령탑 방문
	23:40	씨 엠 립	인 천		· OZ편 출발
10.06 (월)	07:00	인 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방문기간 중 면담자

○ 베 트 남 : 광린성 관광위원회 위원장
○ 캄보디아 : 캄보디아 관광부 국장

베 트 남

1. 베트남의 사회적 특성과 관광산업

○ 베트남은 통일 이후 외국원조의 단절, 낙후성, 심각한 전쟁 후유증, 미국과 서방의 제재 및 봉쇄정책, 이웃 강대국과의 관계악화, 주변국인 캄보디아 크메르 정권의 침공 등으로 대내외적인 악재에 시달림

○ 이후, 1986년부터 경제와 사회 등 전반적인 개혁을 시행하면서 경제는 시장기능을 복합적으로 받아들인 혼합경제구조로 재편하고 현재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

○ 한국과는 1992년에 수교가 이루어졌으며 삼성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지속적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주변국가도 과거에 비해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에서 주요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베트남은 인구가 남북으로 1,65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도로시설 등이 부족하며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실정임. 하지만 베트남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이른 시일 내에 SOC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부족이 교통접근성으로 부재로 이어져 베트남 의 남북 이동 및 관광객 이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베트남의 사회적 문제점 중 하나는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형태인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격차,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패 및 뇌물관행, 직업윤리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베트남은 통일이 되었지만 남북으로 뻗은 지형적인 차이로 북구인은 근면하고, 기후가 열악한 중부인은 인내적이며, 자연환경이 비옥한 남부인은 개방적이고 낙천적



○ 한국과 유사한 것을 본다면 이제 통일이 된 베트남이지만 남북의 민족분단으로 인한 분열이 있고 유교문화권과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점은 단순한 것 같아 보이면서도 내제된 문화의 바탕을 가늠할 수 있음

○ 베트남은 1979년 9월 경제개혁 노선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뒤 1980년대 이후 단계적인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1985년에는 국영기업 경영 자유화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기 시작함

○ 1986년에는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국민소득 수준이 매우 낮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으로 저개발 국가의 지위를 벗지 못하고 있음

○ 자원은 풍부한 편이나 원유와 무연탄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 부족하며 전력은 대부분 소수력 발전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기후를 이용한 풍력과 태양열 발전소 개발계획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미흡하여, 아직 적극적인 투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베트남은 관광산업을 해외자본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요소로 여기며 여행관련 산업업체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외국인 투자 중 두세 번째를 다툴 정도이며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투자도 증대하고 있음. 이로써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요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1988년에 20만 명이던 외국 관광객이 1992년까지 배 이상 늘어 44만 명이 되었고, 이후에는 1994년에 95만 명, 1996년 160만 명 등으로 평균 2년마다 거의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인 방문객수는 연간 45만명에서 70만명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도 75만명이 방문해 한국인 방문객이 전세계 방문객 750만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2011년 4월에 하노이에 한국관광공사 지사를 설치하여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

○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역내의 관광이 열대 휴양지와 유사한 느긋하고 평온한 휴식을 관광매력요소로 내세우는 반면, 베트남은 전근대적 이미지 또는 전통적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음

○ 1986년 '도이머이'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시 시작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관광산업을 해외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990년 이후 호텔과 리조트 개발, 최근에는 고급스러운 관광브랜드를 위한 골프장 건설

– 베트남 정부의 민간 및 관의 협력을 통한 협조 및 연계를 위한 노력 시도 중

2. 천혜의 관광자원인 자연환경

■ 하룽베이 국립공원

○ 하룽베이 국립공원은 중국과의 국경근처에 있으며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버스로 약 3시간 거리이며 2011년에 세계 7대 자연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음

○ 다른 여행지와 다르게 관광객이 걷지 않고도 배를 이용해 섬의 경치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선상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며 여행지에서도 약간의 여독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여행자들에게는 선상에서 하룽베이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제공하여 보는 즐거움에서 식도락까지 연결시키며 관광객들에게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음

– 하룽베이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점심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직접 제공

○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하룽베이 부근에서 선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주민 친화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을 적용

– 관광발전을 구실로 소수 민족을 이전시키지 않고 같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국가의 위기시에 소수민족의 국가기여도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정치적 배려가 개입된 탓이기도 함

○ 하룽베이 국립공원 내에는 다수의 석회동굴이 있으며 섬에는 박쥐, 원숭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섬들이 바다를 덮고 있어 외래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끄는 매력요소로 작용




관광객을 위한 배가 줄지어 있는 모습 전경(좌)과 공원 내 선상생활 (우)

■ 전통공연 수상인형극

○ 수상인형극은 인형을 물 위에 띄워서 대나무와 실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직접 조정하는 공연물임. 수상인형극의 문화적 원류는 강 유역의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비롯된 것으로 베트남 고유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인형극의 스토리는 주로 농민들의 일상생활, 고기잡이 등을 풍자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며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을 표현하기도 함. 주로 악귀로부터 농민과 농사일을 보호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

○ 악단을 구성하여 인형극에 맞추어 연주를 하고 연주의 빠르기에 따라 수상인형들이 움직이며 중간 중간 여자들이 구음을 섞어 긴장감을 더해가는 형식임

○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으로서 생활 전반에 쌀문화의 요소가 침투해 있으며 수상인형극 역시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전통문화가 반영되어 현재의 관광상품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음




수상인형극(좌)과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우)

3.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관광산업

■ 호치민 생가

○ 호치민은 베트남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로서 권력에 유혹당하지 않고 주석직을 맡으면서도 실권은 주위의 당 관료들에게 분배해주었던 인물

○ 베트남에서 '호 아저씨'로 불릴만큼 친근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세계역사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관심을 끌고 있음

○ 이러한 호치민의 역사적 위상과 인지도는 호치민과 호치민을 둘러싼 스토리가 베트남의 주요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생전의 검소한 생활로 인해 호치민이 머무르던 오두막과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화장을 하지 않고 시신을 보존함으로써 후대에까지 관광자원으로 남게 되었음





호치민 생가(좌)과 호치민의 식당(우)

4. 기관 방문 및 면담 : 광림성 관광위원회 위원장

■ 베트남 광린성 관광위원회 위원장면담 : 10. 2(목) / 2일차

○ 베트남은 공산주의 사회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사회체제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분권도 강한 성격을 띠는 복합적인 사회양상을 보이고 있음



○ 광림성 관광위원회 역시 베트남의 지방분권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구로서, 광림성 전체의 관광을 총괄하며 기관 내 약 4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 광림성 관광위원회는 특히 베트남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하룽베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광림성 광광위원회 방문은 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면담은 전문 통역인을 통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였음

○ 광림성 관광위원회 위원장 주요 면담 내용

☞ 하룽베이의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후 관리방안

–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조율 및 탐사 등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음

– 광림성에는 유연탄이 많아 채굴이 많이 되고 있으며 오염물질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파괴될 수도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감시와 더불어 방지하는 역할이 필요함

– 하룽베이에는 돌로 이루어진 곳이 많고 진기한 생물학적 가치를 많아 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바다안의 산호와 원숭이 등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가꾸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임

– 문화적 가치로서는 수상가옥과 같이 체험을 통하여 문화를 공유하는 상품 개발을 계획 중임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실정임.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음

– 하룽베이를 중심으로 한 광림성의 관광발전을 위해 예산집행의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것도 광림성 관광위원회를 이끄는 각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 백명에 달하는 위원회의 파트별 직원들이 매우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식임

– 재정지원 이외에도 정책개발이나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여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단, 위원회 자체적으로 정책개발과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등 전문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기능은 큰 틀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광림성 관광위원회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

☞ 하룽베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하룽베이가 베트남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여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필수코스로 정착되었음

– 자연스럽게 하룽베이로 몰리는 사람이 많은만큼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관광객들의 지출규모가 하룽베이 인근 지역의 과도한 상업화를 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토착주민들이 지역 밖으로 내몰리고 있음 (여기에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고유의 전통문화 유지보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지역 토착문화가 서서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이 관광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고 토착문화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베트남 광림성 관광위원장과의 면담

캄보디아

1. 캄보디아의 사회적 특성과 관광산업

○ 캄보디아는 장기간 동안 정치적 혼란과 내란을 경험하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음

○ 이로 인해 낙후된 인프라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현재 캄보디아는 인프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해외 원조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캄보디아의 건설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도 폭발적으로 활황을 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한국인들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캄보디아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광개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관광 부문이 캄보디아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과 봉제산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외화 수익 측면에서도 봉제산업 다음으로 기여하는 바가 커서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입의 증대, 고질적인 빈곤률 저하를 기대하고 있음

※ 캄보디아 관광산업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

○ 외래 방문객 규모는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2015년에는 400만~500만명의 외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자연스럽게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고용창출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외래관광객의 국적별 구성은 대체로 인근 아세안과 동아시아 여행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중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유럽인 관광객과 북미 관광객들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큼

○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수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 그리고 해변에 인접해 있은 시아누크 지역이며 주요 관광지 외에도 생태관광과 지역사회관광에 관광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다만, 캄보디아는 잠재된 관광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결정적인 장애요소를 안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정책법규, 건강위생, 관광수용태세, 인적 자원 등 세부 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지역생산품도 열악해서 캄보디아 국내산이 호텔 등에서 이용되지 않고 주변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숙박산업도 열악해서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2. 세계 최고의 건축물 앙코르와트

■ 앙코르와트

○ 앙고르와트는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 왕족 12세기 초에 건립한 거대한 석재건축물 사원으로서 앙코르라는 단어는 왕성함을 의미하며 와트는 사원전체를 뜻함

○ 앙코르와트는 13세기 타이왕국의 침략으로 크메르 왕족이 수도를 천도한 뒤 밀림 속에 감춰졌다가 18세기 프랑스 탐험가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짐

○ 앙코르와트 유적은 방대한 규모로 유명하며 외벽은 동서 1,5km, 남북 1,3km의 직사각형 규모, 높이는 100미터에 이르고 건축에 사용한 벽돌은 500만~1,000만 개에 달하며 총 면적이 69만 5천평에 달함

○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유명하고 고대 동양의 신비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탓에 유명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 각종 영상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명실공히 동남아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음

○ 그러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이후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도 파손이 진행되는 상태로 계속될 경우 후대에 유물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함




앙코르 와트 (좌) 유적의 파손현장(우)

■ 아직도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흔

○ 킬링필드는 1970년대 캄보디아 공산지도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라는 무장단체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서, 당시의 참혹한 역사적 경험이 집단의 기억으로 남아 사회 곳곳에 남아 있음

○ 캄보디아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희생된 유골을 전시함으로써 후세에 남겨주고 있고 외래 방문객에게도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하게 되었음

○ 킬링필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만큼 참혹한 학살행위였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음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유골(좌)과
씨엠립 박물관(우)

■ 동양 최대의 호수 톨레샵

○ 톨레샵 호수는 앙코르와트에서 비교적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동양 최대규모의 호수로 경상북도 면적에 버금갈 정도로 넓은 호수임

○ 호수유역은 시엠립에서 프놈펜에 이르며 건기에도 길이가 150km, 너비는 30km에 이르며 우기에는 면적이 3배로 늘어남

○ 호수에는 담수어가 많아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며 주민들의 수변생활이 토착문로 정착하는 지리적 요소로 작용해 왔음



수상가옥에서 주민이 거주수(좌) 열대우림과 같이 위치한 톨레삽호수(우)

3. 기관 면담 : 캄보디아 관광부 및 압사라 재단

■ 캄보디아 관광부 및 압사라 재단 면담 : 10. 4(토) / 4일차

○ 캄보디아 관광부는 국가수입의 절반이상을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국가부처 중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압사라 재단(APSARA Authority)은 캄보디아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앙코르와트의 유적보존과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

○ 캄보디아 관광부 대외협력 및 아세안협력국장(Thok Sakhom) 주요 면담 내용



☞ 앙코르와트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후 관리방안

- 앙코르와트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후 외래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음
- 앙코르와트 유적의 물리적인 보존에 대한 우려는 이미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적 보존체계가 강화된 것도 아님
- 다만, 향후 앙코르와트에 대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보존방안 연구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될 예정임
- 이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 해외 전문기관의 주도하에 보존방안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제반 측면에서 앙코르와트라는 거대 규모의 유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해외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과의 교류

- 캄보디아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해외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기에 한국의 참여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앙코르와트 진입로를 개설해 준 일이 단적인 사례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함
-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앙코르와트 유지보존에도 한국의 문화재청이 컨설팅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음. 한국정부에서도 앙코르와트 유적 보존 및 복원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캄보디아의 관광산업 육성계획 및 전략

- 캄보디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관광 개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반시설 확충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함
- 현재는 인적자원 문제 해소를 위해 관광개발계획을 통해 국립관광기관을 설립하고, 정부를 통해 학생에게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관리 부족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지방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캄보디아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함. 해외에 캄보디아의 관광자원을 마케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탓에 이에 대한 논의도 관광개발 계획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음식, 지역 생산품 분야와 관련해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관광수입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내 생산설비 및 외국인 관광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캄보디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캄보디아 관광부 및 압사라 재단면담

시 사 점

■ 자연환경 자체가 강력한 관광매력 요소

○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습한 기후를 지니고 있어 외래관광객의 불만요소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가 만들어놓은 독특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이점도 있음

○ 베트남과 캄보디아 공히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편의성 또는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환경 그 자체에는 인공적인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천혜의 자연환경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관광매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임

■ 문화유적 보존의 중요성

○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접근은 보편적인 관광육성 방안 중 하나지만 이를 보존하기 위한 체계화된 전략은 부재함

○ 앙코르와트의 경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일컬어질 만큼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체계화된 보존시스템 자체가 없는 탓에 돌이키기 힘든 훼손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전라북도의 경우 역시 사찰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유형문화재 자체가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보존체계를 보강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함

■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광교류 및 협력 증대의 필요성

○ 동남아 역내에서 관광강국으로 분류되는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교류 증대 필요성은 분명해 보임

○ 양국 모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관광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교류가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양국과 지방정부 간의 교류는 부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선점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관광분야 교류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예컨대,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전라북도의 전략을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광분야 교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정
역동적인 희망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